

# 리딩 리서치의 미국 대선정국 대응전략

< 미 대선정국에 따른 가치주 선호도 점검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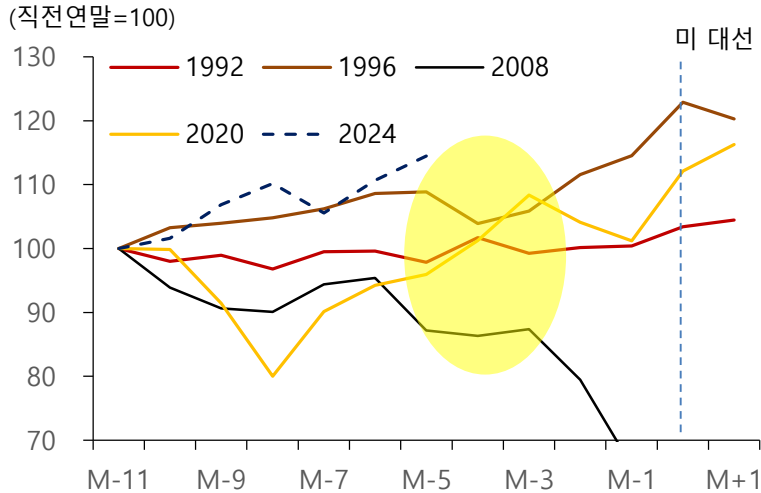
리딩투자증권 곽병열

2024.07.02

# 1 미 대선 변수 : 여름(TV토론 개시)부터 확인심리 고조로 횡보국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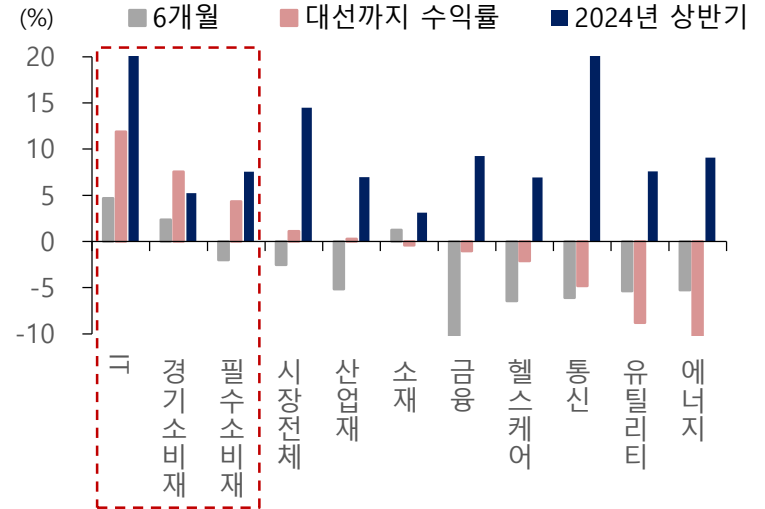
- <미 금리인하 & 미 대선 당해> 사례의 경우 여름(TV토론 개시)부터 주식시장 횡보 국면 발견
- 미 대선정국 본격화에 따른 정책변수 확인 과정을 주식시장은 반영했던 것으로 해석. 금번 역시 첫 번째 TV토론 이후 정책 불확실성이 뉴욕증시에 일정부분 반영되는 과정으로 판단
- 다만 길게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제외하면 뉴욕증시는 정상궤도로 복귀했는데, 결국 '금리인하 및 대선 변수'의 현실화는 '정책 불확실성 완화'로 해석되면서 금융시장 불안정은 점차적으로 해소됨  
→ 사례분석 상 <미 금리인하 & 미 대선 당해> 업종 반응은 IT, 경기소비재, 필수소비재 등이 양호했음

미 금리인하 & 대선 : 뉴욕증시는 여름부터 횡보국면



자료 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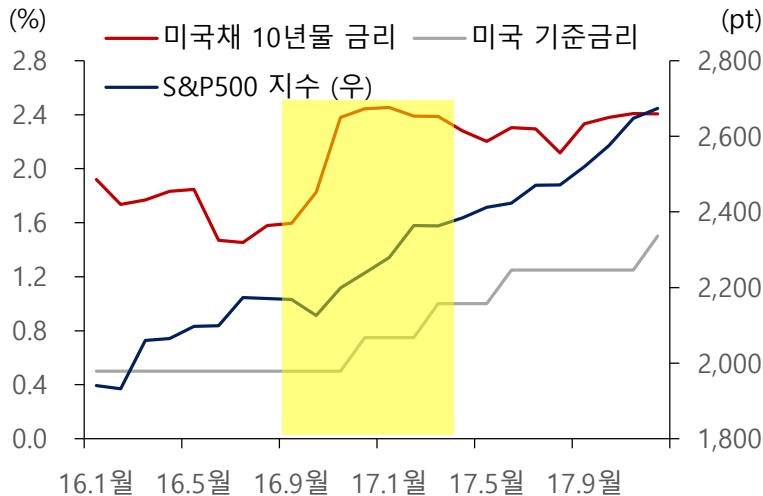
미 금리인하 & 대선 : 뉴욕증시의 업종 반응



자료 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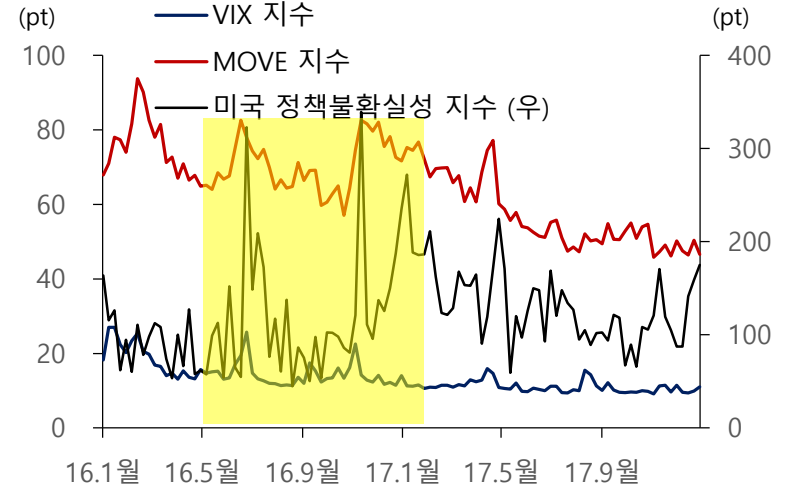
- 현 트럼프의 선전을 감안하여 2016년 대선정국의 트럼프 승리 사례를 되돌아 보면,
  - 대선 이전 주식 강세 - 채권 약세, 대선 이후 주식 강세 - 채권 횡보
  - 당시 여론조사를 뒤엎은 트럼프의 선전 +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반영된 영향으로 해석
  - 주식 및 채권 시장은 고 변동성을 나타내며, 향후 전개될 정책 불확실성을 반영했음
- 다만 트럼프-바이든 정책노선은 이미 경험했고, 금리인하를 앞두고 있어 변동성은 덜할 것으로 판단
  - 에너지-무역-조세 정책 등에 대립각은 뚜렷한 점에서 **간헐적인 변동성 장세는 경계**

2016년 대선 전후 금융시장 반응



자료 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2016년 대선 전후 변동성 지수 반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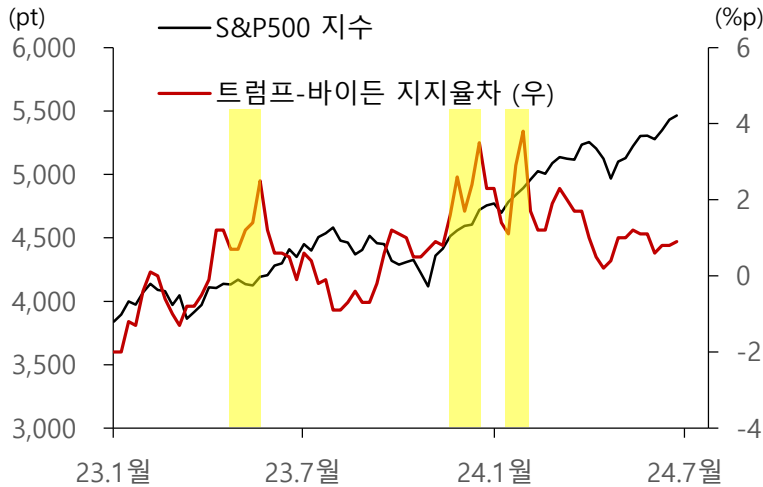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### 3 트럼프-바이든 지지율차↑ → 주식시장은 별다른 동요 없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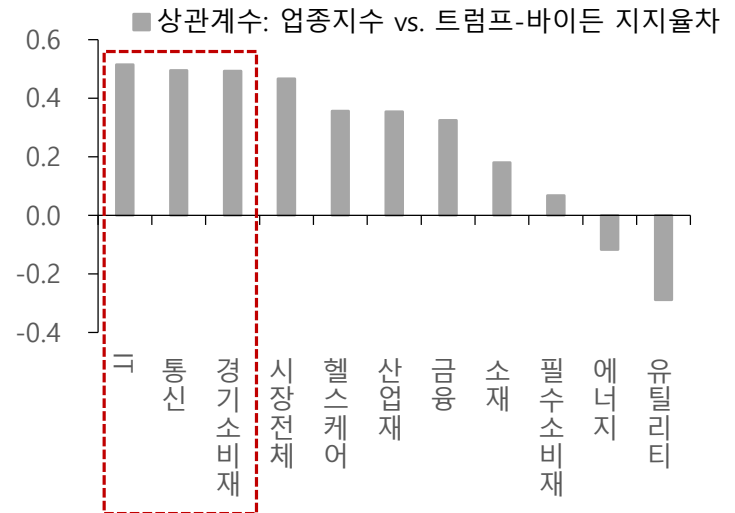
- 2024년 대선정국에서 트럼프-바이든 지지율차는 많게는 3%p 이상으로 벌어졌으나, 뉴욕증시 악영향은 발견되지 않았음
  - 대선변수의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미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대응능력, 인플레이션방지법 등의 정책 전환을 위해서는 의회권력 장악도 필수적이라는 점 등이 일정부분 반영된 것으로 해석
- 트럼프-바이든 지지율차 상승에도 트럼프 정책 수혜주보다 기존 주도주인 AI 업종(IT, 통신)과 경기연착륙 기대감을 보유한 경기소비재의 선전 뚜렷했음

트럼프-바이든 지지율차↑, 주식시장 강세 지속



자료 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트럼프-바이든 지지율차↑, IT-통신-경기소비재↑



자료 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  
 주: 2023년 이후 주간 단위의 상관계수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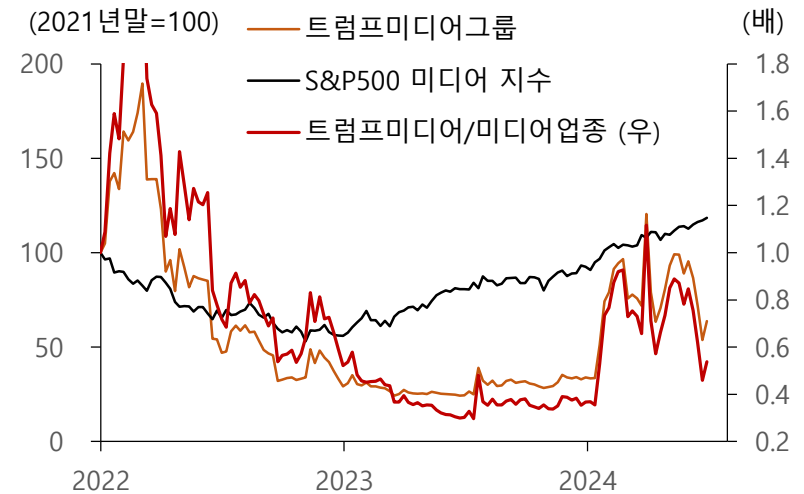
- 트럼프 수혜업종의 주가흐름과 현 트렌드와의 공통 접점이 나타나는 경우 반응도가 클 것으로 예상  
→ 미국 금융 업종의 최근 강세 vs. 트럼프 정책 상 규제완화 시 수혜 금융주의 강세  
→ 금융주의 강세는 가치주 스타일의 순환매 촉매제로 판단
- 다만 적자상태인 트럼프미디어그룹 주가는 미디어업종 지수와 괴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음  
→ 대선 관련 정책변수보다 결국 기업이이익이란 펀더멘털 중요도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함

트럼프 금융지수 및 미국 금융업종 지수



자료 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트럼프미디어그룹 주가 및 미디어업종 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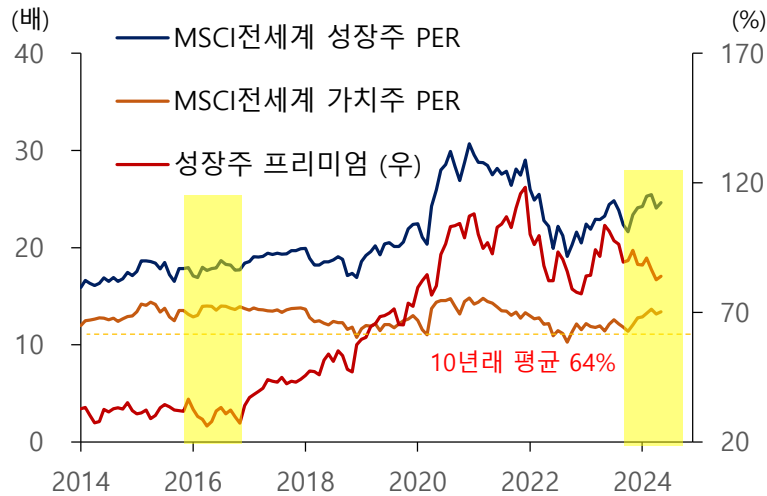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## 5 2016년 대선정국 사례 → 성장주 프리미엄 약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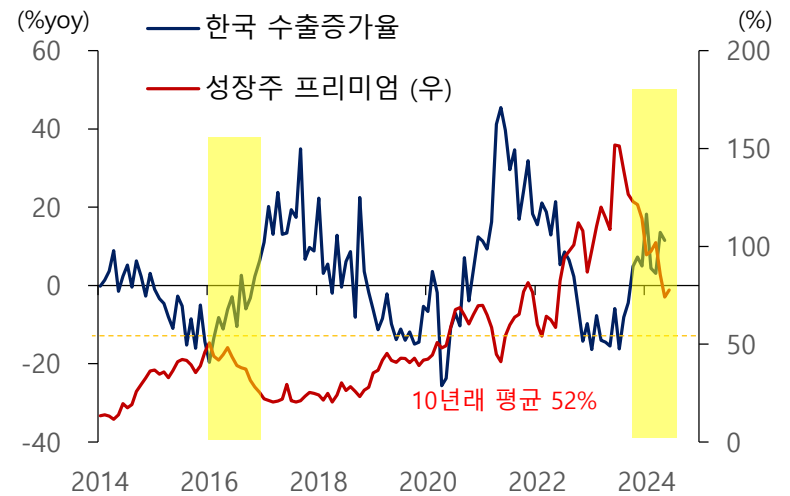
- 본격적인 대선정국 진입은 곧 경제대통령으로서의 구호로 경기복원력 기대감 ↑  
 → 트럼프 수혜섹터인 '금융-에너지(정유)-산업재(인프라)' 강화는 곧 가치주 스타일 선호로 해석  
 → 2016년 대선정국은 전통 제조기반인 'Rust Belt' 지역의 역전에서 비롯 → 성장주 프리미엄 약화 관찰
- 최근 일부 AI반도체의 쏠림 현상에서 경기민감 섹터로의 순환매 강화 역시 일정부분 대선정국을 반영  
 → 국내 역시 글로벌 트렌드의 스타일 동조화, 수출경기 Up-Cycle은 가치주 매력도 ↑

전세계 성장주 프리미엄: 2016년 대선국면 주목



자료 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  
 주: 성장주 프리미엄 = (성장주 PER / 가치주 PER)-1

국내 성장주 프리미엄: 2016년 글로벌과의 동조화



자료 : Dataguide, 리딩투자증권  
 주: 성장주 프리미엄 = (성장주 PER / 가치주 PER)-1

Name	적정주가 (상향-하향) /(전체)	FY25 PER (3M Chg) (%)	외국인매수 강도 (%)
국도화학	0.50	-36.88	0.15
CJ ENM	0.24	-26.84	0.23
에스에프에이	0.50	-21.97	0.39
대한해운	0.25	-19.85	4.03
DB손해보험	0.67	-18.07	0.60
삼성물산	0.30	-16.23	1.14
삼성생명	0.53	-14.92	0.84
NH투자증권	0.25	-14.17	0.27
기업은행	0.13	-10.07	0.72
한국금융지주	0.43	-10.02	0.60
GS건설	0.07	-8.55	0.38
KT	0.07	-7.44	0.06
우리금융지주	0.11	-6.06	0.82
BNK금융지주	0.60	-4.64	2.04
삼성카드	0.60	-4.56	0.12

자료 : Dataguide 리딩투자증권

주: 외국인매수강도 = 60일간 누적순매수 / 시가총액

본 자료를 작성한 금융투자분석사는 동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-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
-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작성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그러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라며,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- 본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, 무단복제, 변형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.